

## 폭염에 가축 죽어 나가고 바다 고수온 피해 속출 이상기온에 美 선녀벌레 등 생태계 교란 곤충 극성

# 농도 전남 기후변화 대응 서둘러라

도 '제2차 세부시행계획'  
환경부 담 없어 협의도 못해  
폭넓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끓고 있다. 폭염 특보가 21일째 지속되면서 광양·여수 등 전남 동부해역에 바다 온도가 28도 이상 오르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으로 24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하고, 미국선녀벌레·꽃매미 등 생태계 교란 곤충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기후온난화와 이상기온이 불러온 변화다. 최근 아열대 기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대로라면 몇 십년 뒤에는 현재 국내 토착 동·식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따라서 농어촌 비율이 높은 농도(農道) 전남이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월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5개년 사업의 '제2차 전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1차 5개년 사업(2012~2016년)은 이미 지난해로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협의 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검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협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의 시행계획 검토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시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4월초 검토 요청을 한 뒤 최근까지 4차례나 재촉했지만, 아직까지 검토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과제별 실천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전남도는 '신기후체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점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병해충, 폭염, 태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대두되면서 적응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근원 대책은 물론 농도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아열대 농작물 재배, 바다 고수온 양식 대책 등도 포함됐다. 기상변화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 등도 담겨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심하게 변하는 기후에 대처하는 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당면과제인 만큼 폭넓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7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담·오리 등 가축의 폐사와 바다 양식장 고수온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어민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능 D-100 201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평가가 101일 앞으로 다가온 7일 광주제일고 3학년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졸음을 쫓기 위해 복도에 나와 공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주의 성지 광주” 이철성 청장이 삭제 지시

강인철 전 광주청장 “이 청장, 황교안 전화 받고 질책”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화제'의 폐북 게시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광주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6면>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의) 삭제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강 전 청장은 삭제지시 과정에서 이 경찰청장이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비아냥 거리는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은 7일 광주일보와 11분 33초간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와 관련해 직원의 아이디어로 '민주화의 성지'란 표현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발단이 돼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해당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삭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광주일보에 보도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광주 시내에서 촛불집회가 예상돼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논란이 된 표현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였다.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민주경찰' 등을 제목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다음날인 19일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당일 오후 갑자기 해당 글을 삭제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이 청장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서 근무하니 좋소', '당신 말이야, 무슨 얼어붙을 민주화의 성지야', '촛불 하나 까 다 정리된 줄 알아' 등의 막말을 쏟아내 당황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당시엔 SNS글 때문에 (이 청장이)화를 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의 전화를 받은 뒤 SNS글 내용 때문이란 것을 알고, 간부 직원들을 소집해 본청에서 글을 내리라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면서 "그런데 이를 뒤 이 같은 내용이 광주일보에 보도되자 이철성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그 내용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고 말씀 드

렸더니, '나중에 보자'며 전화를 끊더라"고 덧붙였다.  
강 전 청장은 당시 SNS는란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개입설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전 청장은 "좌천당한 뒤 너무 억울해서 경찰내부에 알아보니, 이 청장이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경찰청 관련 간부 4명을 소집해 회의를 한 뒤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을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철성 청장과 업무 관련해 수시로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경찰청 SNS 삭제 등과 관련해 통화한 기억은 없다"면서 "강인철 전 청장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철성 청장은 강인철 전 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이같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대변인 논평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文대통령 “한반도 두 번 전쟁 용인 안돼”

트럼프 대통령과 56분 통화  
北 미사일 고도화 우려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56분 동안 통화하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증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유례없이 강력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김인경 메이저 첫승  
브리티시 오픈 우승  
▶ 관련기사 20면

##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려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된™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